

김경린, 김규동의 후기 시세계 연구*

손미영*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모더니즘에서 민족의 회복으로 -김규동의 후기 시
- III. 포스트모던의 사회 탐구 -김경린의 후기 시
- IV. 전환(轉換)과 연장(延長)
- V.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김규동과 김경린의 후기 시세계를 비교 검토한다. ‘후반기’ 동인의 중심인물이었던 김경린과 김규동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공백기 이후 전기의 시적 경향에서 변화한 양상을 보인다. 전후 한국 문단에서 시 「나비와 광장」으로 잘 알려진 모더니스트였던 김규동은 공백기 이후 리얼리즘적 문제의식을 지닌 시인으로 크게 변모한다. 김규동은 후기의 시 작품들에서 망향의 슬픔과 통일된 조국에 대한 기대를 읊는다. 이는 당대의 현실을 분단의 시대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때에 완성된 ‘하나의 세계’가 도래하리라는 현실 인식에 기반 한다. 이러한 창작 경향의 변화는 분절된 세계에서 시인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의 결과이자 그에게 시인의 윤리란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낸다.

김규동의 후기 시가 리얼리즘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에 반하여, 공백기 이후의 김경린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의 시를 창작한다. 김경린은 선포한 이미지와 내부의 스토리가 하나로 합쳐지며 시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크로(macro) 방식의 시 창작법과 투사시, 대화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학술연구비로 지원되었음.

**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시, 구체시, 시소설 등의 형식적인 실험을 계속한다. 이러한 김경린의 창작 경향은 사회를 포스트모던의 시대로 인식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는 다원화 되고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인간 소외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문제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식을 통하여 현대의 독자에게 더욱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그러나 이는 세계 문학 내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동시성에 대한 욕망을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후반기’의 중심인물이었던 두 시인의 시가 공백 이후 서로 다른 변모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당대의 현실을 서로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이었으나,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후기 시의 변모는 주변부 국가에서 소외된 언어로 글을 쓰는 시인이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문제지점이다. 동시에 시인이 겪어야만 했던 오랜 침묵의 의미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 ‘후반기’, 김규동, 김경린,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민중시, 투사시, 시소설, 고향 상실, 회복, 도시, 질주, 나비, 불새, 세계적 동시성

I. 들어가는 말

1950년대 젊은 모더니즘 시인들의 모임이었던 ‘후반기’ 동인은 비록 한 권의 동인지도 출간할 수 없었으나, 식민지 시기의 모더니즘 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후반기’ 동인은 전쟁기의 참혹한 현실을 새로운 방식의 문학을 통하여 풀어내고자 하였다. 이 때, 새로운 방식의 문학이란 진화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적 경향의 문학이었다. 피난 도시 부산에서도 김규동, 김경린, 김차영, 이봉래, 조향, 박인환 등으로 이루어진 ‘후반기’ 동인은 현대 문명이 초래한 재앙인 전쟁을 겪는 한국 사회에 대한 치열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형식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후반기’ 동인 및 관련을 맺었던 문인 중 박인환과 김수영이 한국 모더니즘 시 연구에서 꾸준히 거론되었던 것에 비하여 ‘후반기’의 중심축이었던 김규동과 김경린은 비교적 덜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이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규동은 2005년 마지막 시집 『느릅나무에게』를 발표하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김경린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 시집을 비롯하여 포스트모더니즘 문학론을 발표하여 변하는 시대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었다.

이처럼 김규동과 김경린 시인의 시 창작 활동은 시기적으로 넓었으며, 두 시인 모두 전기와는 다른 후기 시세계의 변모를 보인다. 1970년대 이후의 시에서 김규동은 민족과 통일에 문제에 천착하였으며, 김경린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실험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이들 시기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전기와 후기의 문학을 연결선상에서 파악하거나, 195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시와 문학론을 논의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김규동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의 시적 변모 양상을 모더니즘적 경향에서 ‘회복의 시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써 전체 시세계의 연속성을 설명하거나¹⁾ 1950년대의 모더니스트로서의 활동에 주목하여

1) 기존 논의에서 김규동의 시 세계는 공백기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전기와 후기의 시로 나뉜다. 이들 논의는 전기의 시가 모더니즘 계열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후기의 시는 리얼리즘적 면모를 보이며 민중의 연대를 기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 문학사적 측면에서 김규동 시인의 시세계의 연속성을 고찰한 논의로는 장사선, 『김규동론-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이정수, 『불안과 충돌의 시학』,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이동순, 『김규동 시세계의 변모 과정과 회복의 시정신』, 『동북아문화연구』vol26,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김홍진, 『모더니티에서 민중적 현실인식으로의 시적 갱신』, 맹문제 엮음 『김규동 깊이 읽기』, 푸른사상, 2011.; 박몽구, 『모더니티와 비판 정신의 지평』, 『한중인문학연구』, 제19집, 한중인문학회,

그의 시론 및 작품 세계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모더니티가 지닌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²⁾ 한편 김경린은 주로 1950년대의 모더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세심하게 살핀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김기림에서 김수영, 조항에 이르는 모더니즘 시를 잇는 다리로 평가하거나³⁾, 시어에 주목하여서 이중 언어적 성격으로 인해 드러나는 이미지적 특성을 살펴보고⁴⁾, ‘후반기’ 동인들의 언어 특성으로 확대하여 언어의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모더니즘 문학의 의의를 밝혀내었다⁵⁾. 즉 김경린의 시에 관한 연구는 한국 모더니즘 계열 문학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평가하는 한편으로, 언어 사용에 따른 시적 표현과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김경린과 김규동이 1960년대의 침묵 이후 변모한 시세계를 보였던 것처럼, 기존 논의 또한 전기와 후기 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전체 시세계를

2006 등이 있다.

2) 김규동의 1950년대 모더니즘적 작품 경향을 고찰한 논문은 주로 과학적 시학으로서의 방법론 탐색과 김기림으로 대표되는 1930년대 모더니즘과의 관계, 그리고 현실 인식을 살피는 데에 집중한다. -윤여탁, 「1950년대 모더니스트의 자기 모색」, 『신청어문』 제25집, 서울대국어교육과, 1997.; 김지연, 「1950년대 김규동 시의 시정신」, 『어문연구』 10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조달곤, 「새롭다는 것의 의미-김규동의 『새로운 시론』 비판」, 『동남어문논집』 제9집, 동남어문학회, 1999.; 문혜원, 「전후 주지시론 연구」, 『한국문화』 33호, 한국문화학회, 2004.; 박윤우, 「1950년대 김규동 시론에 나타난 현실성 인식」, 『비평문학』 제3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은정, 「김규동의 시세계 연구: 초기 시와 영화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6, 국어국문학회, 2010.; 강정구 김종희, 「1950년대 김규동 문학에 나타난 모더니티 고찰」, 『외국문학연구』 4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참조.

3) 권경아, 「김경린 시에 나타난 현대성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17집, 2009.

4) 조영미, 「1950년대 모더니즘 시의 이중언어 사용과 내면화 과정」, 『한민족문화연구』 42집, 2013.3.

5) 맹문재, 「『신시론』의 작품들에 나타난 모더니즘 문학 연구」, 『우리문학연구』 35집, 2012.3; 이진영, 「전후 조응으로서의 모더니즘 문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3집, 2010.12.

조망하거나 1950년대의 작품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시인의 후기 시 경향을 세밀하게 살펴 본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1950년대에 함께 모더니즘 동인 활동을 하였던 두 시인이 침묵 이후에 서로 다른 방향의 시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시인의 문학적 인식에 대한 중요한 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고는 두 시인의 후기 시세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김규동과 김경린 후기 시의 의의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는 두 시인이 펼쳐낸 후기 시의 경향과 그 의미를 재검토하는 작업이자 이들의 현실 인식 및 작가적 사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는가를 살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Ⅱ. 모더니즘에서 민족의 회복으로 -김규동의 후기 시

시인 김규동은 1958년에 시집 『현대의 신화』와 이듬해에 시론집 『새로운 시론』을 출간한 뒤, 한동안 시작(詩作)을 중단한다. 그가 활동을 중단한 까닭은 참여하고 있던 잡지의 일이 분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유롭게 시를 쓰기 어려웠던 당시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1974년에 비로소 활동을 제기하는데 이는 자유 실천 문인협회의 결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흥미롭게도 재개된 김규동의 시는 익히 알려져 있던 모더니스트로서의 그의 작품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1950년대의 그의 시세계는 제트기의 속도로 대표되는 현대의 속도와 끝없이 진화하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노래했다. 그러나 1974년 이후 그의 시세계는 민족의 현실과 통일을 열정적이고도 솔직한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적 경향에서 통일된

민족에 대한 열망으로 크게 변모한 것이다. 그에게 시는 화살보다 빠르게
뭉인 것을 잘라내는 검이 되었다.

펜이를 잡은 손과
 펜을 쥔 손의 다름을 알기 위해
 공해에 찌든 들판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일 것은 없다
 시인의 검은 치욕의 검이거니
 가장 합리적인 웃음과 눈짓을 거부하고
 자유를 가두는 운동을 미워하며
 체제를 또한 믿지 않으리라
 날개가 아니며
 형태가 아니며
 관념이 아니리니
 숨쉬는 자유와 만나는 자유를
 백두산에서 한라산 끝까지
 하나되어 솟구칠 통일의 강을 노래하리라
 시인의 검은
 뭉인 것을 자르는 바람결이거니
 화살보다 빠른 뇌성이거니
 육중한 것 기름진 것을 모조리 불태우며
 억압을 푸는 날랜 손이리라

-『시인의 검(劍)』⁶⁾ 일부

인용된 시는 1985년 시집 『깨끗한 희망』에 수록된 시 『시인의 검』의 일
부분이다. 제목이 제시하듯이 김규동은 시인의 펜을 날카로운 검에 비유하

6) 김규동, 『시인의 검(劍)』, 『깨끗한 희망』, 창작과비평사, 1985, p.24.

여 시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팽이를 잡은 손”으로 대변되는 농민의 손과 “펜을 권 손”을 대비하여서 이 두 손의 차이를 지적한다. 각박한 자본주의 현실 하에서 매일을 대결하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애에 비해서 시인의 삶은 일견 소시민의 노동력 위에 기반한 것이자, 현실과 괴리된 세계를 노래하는 아편 같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규동은 위의 시에서 “그 다름을 알기 위해 공해에 찌든 들판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일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발언해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권력과 부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속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시로써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길을 선택하였다.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지요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말처럼 그가 “오늘의 암흑을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억압적인 정치와 그 세계가 내세우는 합리성을 거부하고 진정한 현실을 노래하는 시인의 합리성을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에게 시는 더 이상 나비의 날갯짓이나 비상하는 제트기의 속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조국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 엉킨 것을 풀어내고 끊어내는 날카로운 검이 되었다. 그는 날카로운 시로 현실의 억압을 베어내고자 할 것이며, 이 시는 그러한 그의 의지를 세상에 공포하는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에는 모더니즘 시인으로 활약하였던 김규동 후기 시의 변화는 시인으로서의 윤리, 문학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뇌의 결과였다. 그가 “낙하하지 않고는 심연을 알 수 없다”⁷⁾고 외치며 이카로스의 추락에서 “교감하는 흔들림의 선율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을 때에, 그 안에는 현실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이었던 자신에 대한 동정과 분노가 어려 있었다. 시의 첫 행처럼 낙하하지 않고는 심연을 알 수 없듯이

7) 김규동, 『이카로스 비가(悲歌)』, 위의 책, p.48.

심연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깨끗한 희망』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1985년에 발표한 이 시집에서 김규동은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한국을 살아가는 시인의 고뇌와 의지를 그려내었다. 그에게 시인의 역할이란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치욕을 짊어진 채 어두운 현실과 그러나 곧 밝아올 미래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 때 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억압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이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 정신이다. 그 정신만이 “펜을 권 손”의 시인을 구원해줄 수 있는 길이며, 시인의 윤리이다. 그리고 그 윤리에 입각하여 노래해야 할 세계가 “하나의 세상”이었다.

고문과 분신과 한 맺힌 싸움으로
 막내아이보다 어린 젊은이들이 죽고
 국토의 분단은 그대로인 채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나날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곰곰 생각해본다
 헛된 상상력은 허공중을 날고
 두려움은 무겁게 쌓여
 핵폭탄 깔린 땅에서
 밥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만은 믿을 수 있는 말을 전해주는데
 남도 북도 없는 하나의 세상
 그것은 아직도 아득히 머나
 간소한 저녁상을 대하고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있노라면
 갑자기 무엇인가 내게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가냘프게 그러나 또렷이

내 혈관 속에
그 무슨 커다란 기쁨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의 세상』⁸⁾ 일부

젊은 날의 김규동은 “정신분석이니 쉬르레알리즘 선언 따위도 흥미”롭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열정에 가득한 젊은 시인이었던 그가 몰두했던 문학적 경향은 정신분석과 초현실주의의 기술을 한국의 현대시로 실험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그에게 세계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였으며 이 속도에 맞춰 새로운 시 역시 함께 변화하여야 했다.⁹⁾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잠시 떠났던 것으로 생각했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에 남아서 “밥 짓는 일에 애정을 바”치고 있다. 그가 살아가는 현재는 전쟁은 끝났으나 여전히 젊은이들이 싸움으로 죽어나가며, 땅에는 핵폭탄이 깔려있는 단절과 분쟁의 시대이다. 여전히 암울하기만 한 현실에서 시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그에게 문득 밥 끓는 소리가 단 하나의 믿을 수 있는 말을 전한다. 그는 그 순간 간소한 저녁상에 앉아 대하는 밥의 온기를 발견한다. 그 속에는 남도 북도 없는 하나의 완결된 세상이 모두 담겨져 있다.

간소한 밥상이 주는 소박한 행복에서 시인은 그가 열정적으로 세우려 했던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이나, “헛된 상상력”으로는 결코 완성해내지 못

8) 김규동, 『하나의 세상』, 『하나의 세상』, 1987, p.59.

9) 김규동은 1957년 『새로운 시론』에서 근대적 양식으로서의 새로운 시(新詩)와 자유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의 인간-오늘의 시인만이 쓸 수 있는 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란 세계의 역사를 진보의 과정으로 인식하여서 현대의 전망을 반영한 시이며, 창작 방법론으로는 에즈라 파운드의 멜로포이아(melopoecia)-파노포이아(phanopoecia)-로고포이아(logopoecia)의 개념을 빌려오며, 정서와 리듬이 시의 미덕이었던 19세기의 시를 멜로포이아적 시로 판단하여 20세기의 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한 시가 켜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규동, 『새로운 시론』, 산호장, 1957 참조.

했던 “믿을 수 있는 말”을 찾아낸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혈관에 내재되어 있던 “커다란 기쁨”을 깨닫는 시인의 감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먹어야 산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즉, 인간은 평등하며 음식을 섭취하여 살아간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밥의 온기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듬어 안는 따스함이자 진실한 하나의 세상이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 김규동은 밥 한 공기에서 문학의 ‘진실성’을 발견해낸다.

그래서 더욱 밥 한공기의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죄책감이 그에게 더해진다. “닭이나 먹는 옥수수”¹⁰⁾를 보내는 괴로움이나 북한 어린이들과 섬을 향해 날아가는 꿈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음식점에 돌을 던지는 장면¹¹⁾들은 그의 죄책감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이들과 함께 돌을 던지는 화자의 모습은 마치 유년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유롭고 천진하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은” 아이들이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온전한 세상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다. 또한 그 아이들은 화자가 기억하는 유년기의 평화로운 삶을 잃어버린 고향의 현실을 은유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따뜻한 밥으로 그려내는 ‘하나의 세상’은 모두에게 공평하

10) 김규동, 『어머니는 다 용서하신다』, 『느릅나무에게』, 창비, 2005, p.10.

11) <...>아이들이 달려들어 나를 일으켜세웠는데/이에들은 먹을 것 제대로 못먹은 북한 어린이들이라 했다/우리는 유리창 밖에서 궁궐 같은 그 집 안을 들여다 보았다/요리점 안에서는 점잖은 서양 손님 둘이 원숭이 요리를 맛보고 있다/산 원숭이를 붙들었다/요리사가 망치로 짐승의 정수리를 치니/꿀수가 불끈 솟아올랐다/그것을 두 서양 손님이 젓가락으로 집어 맛보는데/입에서는 원더풀 원더풀 하는 소리가 계속됐다/한 사람은 T.S. 엘리엇같아/ 머리를 깨끗이 빗어올린 자이고/또 한 사람은 제임스 조이스같이/코필에 노랑 수염을 기른 자였다/에즈라 파운드 영감은 아니었다/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임격정』에 나오는 돌석이같이/주먹만한 돌을 그 집을 향해 날렸다/어디 맛 좀 봐라 이놈들/이렇게 외쳐대며 아이들이 돌을 던지자/요리점은 순식간에 박살났다/이윽고 이북 어린이들과 나는/밤하늘을 훨훨 날아/어느 자유의 섬나라로 탈주했다.<...> - 김규동, 『그것도 현실은 현실이다』, 일부, 위의 책, p.98.

게 주어진 아름다운 세계이자 유년 시절을 닮은 ‘어머니의 세상’으로 드러난다. 『오늘밤 기러기떼는』(1989), 『생명의 노래』(1991), 『느릅나무에게』(2005)에 이르는 후기 시편들은 주로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읊고 있다. 이들 시편에서 어머니는 북쪽의 고향과 같은 존재이자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리움과 고통의 대상이다.¹²⁾ 특히 마지막 시집에 실린 시 『느릅나무에게』는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직감하는 어조가 짙게 깔려 있다. 행복하던 때를 모두 기억하는 ‘느릅나무’가 이미 사라진 것처럼 그 아름답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존재는 이제 아무데도 없”는 까닭이다.

어머니와 느릅나무로 상징되는 고향은 그에게는 분명히 공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미 그 본질은 사라지고 없는 헤테로토피아¹³⁾의 세계가 되어 버렸다. 시의 검을 통해 현실과 완성된 미래를 노래하던 시인은, 평등한 행복과 헤테로토피아의 세계가 되어버린 고향을 발견하였다. 통일된 미래

12) 이동순은 김규동 시에서 ‘어머니’에 대한 시적 화자의 어조와 태도는 시집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동순은 실험민으로서의 시인의 그리움과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체념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한다. 이러한 변모 양상은 시인의 내적 갈등이자 ‘어머니’와 통일된 조국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김규동 시에 나타난 ‘어머니’시에 모티프에 대하여서는 이동순, 『장엄한 분단서사와 회복의 정신-김규동 시인의 시세계』, 『김규동 시전집』, 해설, 창비, 2011.; 이동순, 『김규동 시세계의 변모 과정과 회복의 시정신』, 『김규동 깊이 읽기』, 푸른사상, 2012 참조.

13) 푸코는 사회 내에 존재하면서도 유토피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 명명한다. 헤테로토피아의 장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현실화된 유토피아적 공간이기도 하다. 즉, 실제 존재하면서 유토피아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김규동에게 ‘고향’은 휴전선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는 공간이며 어머니와 완성된 세계로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실존하는 동시에, 현재는 따뜻한 온기의 행복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깥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참조.

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귀하던 진정한 세계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김규동은 회복의 시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다가를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의 세상’이 완성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감격에 찬 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그가 찾아낸 시의 윤리였다.

Ⅲ. 포스트모던의 사회 탐구 -김경린의 후기 시

김규동과 함께 ‘후반기’의 좌장으로 활동하였던 김경린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시작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잠시 문단에서 멀어져 건설공무원으로서의 삶에 충실하던 그는 1985년 자신의 시를 묶은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재개하였다. 김경린은 시집의 후기에서 이 공백의 시기를 “개인적인 모색기”¹⁴⁾로 지칭하였는데, 이 모색의 기간은 그가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 문학 경향에 응답한 시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경린은 그의 후기 시 작품들, 즉 1987년에 발표한 시집 『서울은 야생마처럼』과 1994년에 발간한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유파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 시는 인간존재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 감성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매크로 이미지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때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환유가 중요시 된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제 11차 세계 시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작품 전체를 하나의 매크로

14) 김경린, 「후기를 위한 메모랜덤」,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청담문화사, 1985, p.164.

(macro) 이미지의 세계를 구축하여 표층의 이미지와 심층의 스토리화를 기하여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선명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방도로서 재래의 직유와 은유의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면서 새로이 환유의 방법도 개발함이 필요해 집니다.”¹⁵⁾

세계 시인 회의에서 그는 새로운 창작법으로 매크로 구성, 즉 표층의 이미지와 심층의 서사화를 언급하였다. 매크로(macro)란 컴퓨터 용어로서 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서 하나의 명령으로 만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를 시의 창작에서 이해한다면, 각각의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축된 이미지의 세계는 표층의 지각 작용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그 내부의 이야기를 전달하여서 이미지와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만들게 한다. 그러므로 매크로의 방식으로 창작된 시는 한 개의 강렬한 이미지가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지배하기보다 서로 상충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이미지와 단어들이 합쳐지고 충돌하면서 시의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 그 많은
재화와 권력과 사랑을 내장한 채
잠자는 건물들은
도시의 거인
아니면 분지에 사는 야생마입니까
아직껏
관능을 다하지 못한 네온이 뿜는
색소의 무늬 아래
취기 어린 그림자마저 사라져간
거리

15) 김경린, 『불새』, 『그 내일에도 당신은 서울의 불새』, 경운문화사, 1988, p.156.

단지 야간인구를 위해
 질주하는 차륜의 폭음만이
 관현악처럼
 울려퍼지는 하늘
 회색 물감이 흘러내리는 하늘에
 누른 빛깔이 스며들고
 신문배달 소년의 발굽소리와
 청소부의 하품소리와
 어머니의 도마소리에 깨어나면
 힘찬 호흡과
 거대한 엔진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서울은
 야생마처럼 거인처럼
 오늘과
 미래의 세계도시를 향해
 질주하는 마라톤 선수입니까

-『서울은 야생마처럼 거인처럼』¹⁶⁾ 일부분

인용된 시는 직유를 활용하여 거대한 서울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시이다. 불이 꺼진 새벽 네 시의 건물들은 내부에 열정과 에너지를 간직하고 잠든 거인이자 야생마이다. 또한 거리의 불빛과 차의 배기음이 울려 퍼지는 하늘은 그가 꾸준히 천착하여 온 속도와 직선의 이미지를 제시한다.¹⁷⁾ 그러나 미래를 향한 질주가 추상화 된 근대의 도시를 가로

16) 김경린, 『서울은 야생마처럼 거인처럼』, 『서울은 야생마처럼』, 문학사상사, 1987, pp.52-53.

17) 김경린의 시에서 ‘빠른’ 속도는 도시의 풍경을 수평과 수직의 선으로 만든다. 즉, 속도가 만들어내는 수평의 직선과 수직선화 된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높은 건물들이 서로 만나 설계도와 같은 기하학의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그의 초기시

질렸던 초기의 시와 달리 위의 시는 서울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이미지화 하고 있다. 예컨대 1956년에 발표한 시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에서 시인은 “보도 위에 부서지는 얼굴의 파편들”이나 “황혼이 전신 주처럼 부풀어 오르는 가각(街角)”으로 당시의 서울을 그려낸 바 있다. 또한 1947년에 발표한 『국제열차는 타자기처럼』에서도 “조상들이 뿌리고 간 설화가 아직도 남은 거리”로 다소 추상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도시를 표현하였다.

이에 반해 『서울은 야생마처럼 거인처럼』은 ‘야생마’와 ‘거인’, ‘마라톤 선수’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이미지의 선명성을 높였다. 네온사인과 등이 켜져 있는 밤거리,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 “청소부의 하품소리와 어머니의 도마 소리”처럼 아침을 깨우는 소리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서울의 아침을 또렷이 떠올리게 하는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화 된 이미지와 시어들은 ‘서울’이라는 하나의 시어로 모여져서 현대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를 향한 질주를 드러낸다. 위 시의 창작 방식을 설명하면서 김경린은 “새롭고 참신한 의사소통의 통로개설을 위한 방법으로 은유를 어느 정도 지양하고 언어 형식으로는 직유이면서도 환유(Metonymy)와 제유(Synecdoche)의 효과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서울은 야생마처럼 거인처럼’이라는 시제를 얻어냈다고 하였다.¹⁸⁾ 서울을 수식하는 ‘야생마’와 ‘거인’은 각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질주하는 도시 서울의 역동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화하고 거대 도시화 된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뚜렷한 이미지는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에 대한 이야기와

(1945-1958)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손미영, 『속도에 매혹된 모더니스트의 초상-김경린론』, 『비평문학』, 비평문학회, 2014.3. 참조.

18) 김경린, 『현대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다원화사회의 시적 메타 언어를 중심으로』, 앞의 책, p.119.

만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질주하는 현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의미가 투사된 이미지를 통해서 서울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이후의 작품집인 『그 내일에도 당신은 서울의 불새』에서도 지속되었다. 김경린은 “불새”를 통해서 도시의 모습과 현대의 물결 속에서 날아오르는 새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데,¹⁹⁾ “불새”는 열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시인 자신이자 현재의 서울이다. 이 시집에 실린 시편들에서 김경린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생활의 광채를 위해”서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당신”과 “나”를 “서울의 불새”²⁰⁾로 호명한다. 불꽃처럼 부활하는 불새는 서울과 세계 곳곳의 도시의 모습을 일별함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즉, ‘불새’라는 선명한 이미지가 도시의 모습과 만나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이미지화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시의 창작 방식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시인 스스로가 강조하다시피,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다소의 지각성은 있어도 다른 선진 사회와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던적인 요소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²¹⁾이며, 그 시대적 동시성에 응답하는 것이 시인으로서의 역할인 까닭이다. 이러한 그의 현실 인식이 매크로적 구성과 환유, 제유의 수식

19) 김경린은 시집 『서울은 야생마처럼』에서도 “불타 오르는 이미지의 조각”(『올림프스의 새들』), “오늘 속에 비둘기처럼 날아보는 것”(『단 하나의 광채일 뿐』), “참새처럼 쏟아져오는 빗줄기 속을 헤엄쳐 봄도 좋지 않습니까”(『참새처럼 빗줄기 속을』)와 같은 부분들에서 날아오르는 새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는 이후에 발표한 시집 『그 내일에도 당신은 서울의 불새』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새”, 혹은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이미지는 시인의 당대 현실 인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김경린, 『그 내일에도 당신은 불새』, 앞의 책, p.27.

21) 김경린, 『알기 쉬운 포스트모더니즘을 위한 에스퀴스』, 『알기 쉬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주변 이야기』, 문학사상사, 1994, p.5.

을 활용한 새로운 창작 방법론을 모색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94년에 발표한 시집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에서 시인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여왔던 ‘이미지’에서 ‘이야기’의 세계로 옮겨간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소설 대화시”라는 시집의 표제가 증명하듯, 그는 이 시집에서 ‘이야기’ 혹은 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래도 그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려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의 낯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때는 <베사메 무쵸>라는 유행가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Love or Leave me>의 외국노래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고 신경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전화를 걸었으면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하지 않아.』-버럭 소리를 지르곤야 말았습니다.

『저 Miss 김인데요, 언젠가 선생님이 남산 시립도서관 강당에서 <현대시의 대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앞자리에 앉았었고, 회식 도중에 선생님께서로부터 이상한 분위기 같은 것을 느낀 나머지 선생님의 명함을 달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 우연히 신촌 거리에서 선생님을 뵈고 시도 배우고 싶다고까지 했었는데 벌써 잊으셨나요. 저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서 알려려고 했는데 무슨 불쾌한 일이라도 있으세요?』-그렇다면 Miss 김이 그러한 장난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그 전화벨 소리는 울려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んの <An American In Paris>의 피아노 협주곡이 들려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음악을 좋아하시지요?』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절치고는 지나친 장난인 것을 직감한 나는 수화기의 코드를 뽑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전화 번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인간에게 불안의

식을 준다는 것은 진정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밤 11시면 울러 오는 전화벨 소리』²²⁾ 일부분

1994년에 발표한 마지막 시집에서 김경린은 ‘시소설’과 ‘대화시’의 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시소설은 소설의 형식이 활용된 시로서, 소설적인 사건과 묘사, 대화로 씌어졌다. 또한 시인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일 것으로 짐작되는 사건을 활용하여 작품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매크로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현대인의 삶과 애상이라는 주제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주제는 이 시기에 발표한 시소설과 대화시에 이르러서는 시에 내재한 사건과 대화를 통해 전달된다.

인용한 시는 매일 밤 열한 시마다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전화에 불안함을 느끼다가 참을 수 없어서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화자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을 빌어서 쓰고 있다. 이때 소설적인 상황과 사건이 은유하는 것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 야기된 인간 사이의 갈등과 존재론적 불안의식이다. 매일 밤 같은 시간마다 걸려오는 전화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화자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며, 마침내는 관계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게 까지 만든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전화’라는 하나의 매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며 더 나아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회의 일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시소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시도는 현대적 삶의 ‘속도’가 가속화되었기에, 문학의 형식 또한 이에 따라서 변모해야한다는 의식에서 기인한다. 즉, 현대의 시간이 점차 응축됨에 따라서 소설 또한 구성이 압축적으로 짜이며 마침내는 소설도 시에 가까워진다는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²³⁾ 그러

22) 김경린, 『밤 11시면 울러 오는 전화벨 소리』,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 문학사상사, 1994, pp.23-24.

므로 현대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새로운 시는 ‘시소설’의 형식을 통하여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은 야생마처럼』과 『그 내일에도 당신은 서울의 불새』에서 현대의 특성이 투사된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가 시 내부의 스토리와 만나서 메시지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에 이르면서 소설 형식이 시에 들어오면서 전면화 된 서사가 시의 주제를 드러낸다. 특히 시의 마지막 연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인용한 시의 마지막 행인 “문명의 이기가 인간에게 불안 의식을 준다는 것은 진정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는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탄생한 매체로서의 전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다. 전화는 결혼 소식처럼 누군가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매체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악의적인 장난에 쉽게 노출시킨다. 화자는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시화(詩化)하며 마지막 행에서 주제부를 강화한다.

이러한 시의 창작 방식은 같은 시집에 실린 다른 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제작인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에서도 화요일마다 만나던 여자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마지막 연에 이르러서는 미국으로 떠난 여자와 도시 계획으로 사라진 다방을 병치시켜서 경제 발전과

23) 김경린은 그의 시론 『현대시의 스토리화 경향을 중심으로』에서 1980년대의 미국 시단의 스토리화 경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 글에서 그는 현대를 “다층화와 다원화의 생활 속에서 활자 매체에 의한 긴 소설을 읽을 사이가 없고 전자 매체의 발달에 즈음한 시각적, 청각적 매체에 의하여 예술적 정취를 얼마든지 용이하게 터득할 수 있다는 데서 모든 문학·예술이 미니멀리즘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설에, 소설은 시에 점차 가까워질 것이라는 예측의 증거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들의 스토리화를 들고 있다. -김경린, 『현대시의 스토리화 경향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주변 이야기』, 문학사상사, 1994 참조.

그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의 의미를 되묻는다. 또한 『술방울 부부 이야기』의 마지막 연은 “이 거리에 문명이 밀려오고 인간들은 차츰 사라져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라는 말로 끝맺음으로써 인간 소외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즉, 김경린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에피소드들을 ‘투사시’ 또는 ‘시소설’의 형태로 창작함으로써 점차 문명으로부터 소외되고 불안감을 느끼는 인간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주문을 외워 불러내었던 저승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법사”²⁴⁾의 시대를 효과적이고도 미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형식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IV. 전환(轉換)과 연장(延長)

1950년대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후반기> 동인의 주요 인물이었던 김경린과 김규동의 행보는 1960년대에 시작된 침묵과 창작 활동의 재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침묵 이후, 이들의 문학 경향은 상반된 방향으로 향한다. 김규동은 어두운 현실과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헤테로피아의 세계를 읊었다. 한편 김경린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조용하여 시적 실험을 계속한다. 이는 현대인과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모더니즘 시작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일종의 연속적 관계를 감안한다면 김경린의 후기 시편에 비하여 김규동의 후기 시 세계는 그 시적 변화

24)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박종철출판사, 1991, p.405.

의 폭이 크다. 김규동의 후기 시에서 시각적이면서도 다소 복잡한 이미지들을 활용하였던 전기 모더니즘 경향의 시어(詩語)들은 서정성과 리얼리즘적 경향이 짙은 시어들로 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거리의 시”를 쓸 수 없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자신을 답답하게 여겨왔다고 고백하였다. “모더니즘의 잔재가 남아서 민중시에의 열망을 방해”²⁵⁾했다던 그의 술회에는 시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예컨대 공백기 직후에 발표한 시 『죽음 속의 영웅』은 무려 여덟 쪽에 이르는 장시로, 현실의 억압에 저항하여 투쟁하다가 사라진 사람들과 그 죽음을 통해서 민족의 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죽음은 하나의 실재로 만연해 있다. 시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가슴을 울리고 지나는 말”을 찾던 시인은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된 뒤”에는 마침내 “민중만이 남는다.”고 외치게 된다. 그것은 죽었으나 영웅이 된 사람들이 남긴 의미이며, “영원한 정신”²⁶⁾이다. “폐허의 사막으로 가는 바람 속엔 검은 나비”²⁷⁾를 통해서 “불안한 세기”를 노래하던 시인은 이제 폭압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와 같은 시인의 전환은 일견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나비와 광장』에서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시편을 여러 편 창작한 바가 있다. 여러 논의들이 지적하였다시피 개인적인 고향 상실의 고통은 자연스레 권력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과 저항 의지를 전면화하는 시의 전환을 예고한다.²⁸⁾ 이러한 그의 시세계 전환에서 가장 큰 변모 양상을 드러내는

25) 김규동, 문창길 대담, 「먼 이야기보다 가까운 이야기를 쓰자」, 맹문제 엮음, 『김규동 깊이 읽기』, 푸른사상, 2012 재수록, p.355.

26) 김규동, 『죽음 속의 영웅』, 『죽음 속의 영웅』, 근역서재, 1977, pp.5-10.

27) 김규동, 「항공기는 육지를 떠나고」, 『나비와 광장』, 산호장, 1955, p.146.

것이 바로 창작 기법이다. 주목할 것은 기법적 측면에서 추상적인 이미지로 전개되는 전기 모더니즘 시에 비하여 후기의 시세계는 명료하며 생활에 기반한 구체적인 묘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의 후기 시세계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후기 시세계 중에서도 공백 직후에 발표한 『죽음 속의 영웅』은 이후에 발표한 시집인 『하나의 세상』이나 『느릅나무에게』에 실린 시편들에 비하여 다소 주지적인 단어와 한자어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예컨대 『느릅나무에게』의 언어는 “기억력은 백과사전”, “세찬 세월”, “가슴 울렁이는 이야기” 등으로 이해가 쉽고 다소 전형적인 시어로 주제를 전달하였다. 이에 반해 『죽음 속의 영웅』은 추상적 이미지를 활용한 시어들이 활용되었다. “소낙비 속을 비스듬히 뇌성처럼 스치”는 “죽음”, “지혜의 일곱 기둥”, “실재의 두께”, “원환”, “위대한 정적의 세계” 등의 시어들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이미지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도 추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한다. 주제의 측면에서는 후기 시의 전체적인 세계와 일치하지만, 시의 언어나 이미지의 활용 면에서는 다소 1950년대 모더니즘적 경향에 가까운 것이다.

김규동의 후기 시세계에서 이러한 시어의 변화는 “실재의 두께”에서 “따뜻한 밥”과 “느릅나무”의 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현실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었던 시어와 이미지들은 후기 시에 이룰수록 생

28) 맹문재와 이동순은 ‘광장’과 ‘나비’에 주목하여서 모더니즘적 경향을 보인 그의 작품 세계에서 이미 후기 시세계의 변모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동순에 따르면 ‘나비’는 분단을 초극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대변하며, 맹문재는 ‘나비’의 모더니즘적 계보와 세계 인식을 살핀다. 한편 박몽구는 소외된 소수를 향한 관심의 측면에서 전기와 후기의 작품 세계의 연속성을 밝히면서 분단 희생자라는 소수의 입지를 활용하여 민중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한다. - 맹문재, 「나비와 광장의 시학」; 박몽구, 「모더니티와 비판정신의 지평」; 이동순, 「김규동 시세계의 변모 과정과 회복의 시정신」

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단어들로 치환되며, 애상적이던 분위기는 구체적인 감격과 서정으로 변모한다. 이는 억압과 굴욕에 저항하는 작가적 양심을 중요하게 여긴 시인으로서의 의지일 것이다. 김규동에게 ‘쓰는 것’의 의미는 한 시대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옳은 편에 서서 ‘잘 써내는 것’²⁹⁾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의 모순에 대면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무엇에 대항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왜 쓰는가’, ‘무엇을 쓰는가’의 질문과 맞닿아 있었다.

현대 문명의 속도에 경탄하던 시인이 ‘왜 쓰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면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이던 시어들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변모하였다. 즉, 김규동은 민중의 절곡을 체현하고 희망과 생명을 노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정과 언어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를 위하여 쓰던 시에서 벗어나 대중에게로 가까이 가는 시의 세계로 옮겨가게 되었”³⁰⁾다고 고백하였다. 대중과 민중을 향한 그의 전환은 침묵 끝에 한 편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어질 컨텍스트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자, 동시에 시인으로서의 삶을 재발견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그는 “서글픈 무기”를 들고 “항상 결정적인 총소리”인 그 내면의 음악을 들으며 “혼자 일어서”³¹⁾기

29) “그러나 지금은 오늘의 사회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진짜 문학을 써보겠다는 지향이 매우 강해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억압과 굴욕,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의 시대가 다시 우리 앞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면 작가나 시인은 정의감과 작가적 양심에서 다시금 쫓기하게 되겠지요. 큰 저항, 그런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잘 쓰는 것, 한 시대를 잘 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작가가 자기 조국에 봉사하는 길입니다.”-김규동, 문창길 대담, 『먼 이야기보다 가까운 이야기를 쓰자』, 앞의 책.

30) 김규동, 『“후반기” 동인시대의 회고와 반성』, 『시와 시학』 제1호, 1991.3, 시와시학사, p.362.

31) 김규동, 『서글픈 무기』, 『죽음 속의 영웅』, 근역서재, 1977, p.111.

로 결심하였다. 현실을 폐허가 된 ‘광장’이자 단절된 세계로 인식하고 이 속에서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다.

김규동이 현대를 단절된 세계로 인식하고 민족 회복을 위해 민중으로 전환하였던 반면에 김경린은 당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의 형식적 실험을 거듭한다. 선명한 이미지와 내부의 스토리화를 통하여 매크로 구성을 실험한 ‘투사시’를 비롯하여, 소설적 형식을 빌려온 ‘시소설’, ‘대화시’와 ‘구체시’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그의 창작은 새로운 시 형식을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형식 실험은 “어떠한 관념적인 이미지보다는 가시적인 스토리를 바라는 경향”³²⁾을 가진 현대의 대중 독자들을 배려하였다는 그의 말처럼, 독자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에 실린 시론에서 김경린은 “현대시는 현실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지성과 감성의 결정체로서 에너지를 발산케 함으로써 과학문명 속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의 가슴 속을 뚫을 수 있는 시인의 메시지로 발전되어야 한다”³³⁾고 주장하였다. 김경린에게도 현실을 기반으로 창작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윤리이자, 역할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경린은 현대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시 작법의 실험을 주장하며, 그 예시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들었다.

김경린의 글에서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예시는 징후적으로 읽힌다. 인간 소외의 한 원인으로서 인공두뇌를 제시하는 까닭이다. 그는 인공두뇌가 점차 사회 내에서 활용되는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인간 노동력의 중

32) 김경린, 『불확정성 시대의 호흡소리』,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 문학사상사, 1994, p.146.

33) 김경린, 『경험의식과 지성과 감성의 메시지』,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청담문화사, 1985, p.160.

요성이 증감하고 더 나아가 마침내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외되는 현상이 도래하리라고 예견하였다. 그는 현대의 중요한 문제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소외되는 인간의 삶과 사회적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량 살상의 가능성이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입증되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의식이 짝트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더욱 발전된 과학이 다중화 사회를 형성하면서 인간 소외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문명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매혹되는 양가적 감정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탄생 기반이 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란 결국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선진화된 국가에서 가능한 문화적 조류이다.

김경린은 1990년대에 이르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이제 경제면에서만 아니라 정신과 문화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서울은 한때 “길가에 쓰러진 병사의 선혈과 불타는 거리의 매연”이 물들이던 도시였으나, 이제는 “내일이 있어 청소년들의 바이크가 날고 찢어지는 소녀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거리”³⁵⁾가 되었다. 그는 이처럼 변화한 거리에서 “목마와 함께 떠난” 친구와 모나리자의 여인을 떠올리지만 분명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망각하자는 것은 아니”³⁶⁾었다. 모더니즘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 특히 “인공 두뇌에 밀려가는 인간의

34) “이러한 사조들을 단순한 외래 사조라고 외면하기에는 현대의 생리가 바로 국제화 시대에 있고, 우리도 경제 분야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으며 과학 부문도 벌써 세계적인 수준에 육박하면서 세계적인 동시성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있느니만치 정신 분야라고 무관심할 수는 없음이 당연하다 하겠다. 무작정 전통만을 고집함은 낙후를 의미하며 쇠퇴를 자초하지 않겠는가.” -김경린, 『시작하면서 몇 마디』, 『알기 쉬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주변 이야기』, 문학사상사, 1994, p.29.

35) 김경린, 『그때 그 거리를 가며』,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 문학사상사, 1994, p.106.

36) 김경린, 『명동 거리의 생태학에 대해』, 위의 책, p.79.

원형”을 찾는 노정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는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다원화 된 사회, 무엇보다 세계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시인은 “세계적인 동시성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찾아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현실 인식은 발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직선적 세계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시간과 역사는 빠르게 질주하면서 미래로 향하고, 인간 또한 변화하므로 문학은 응당 이러한 속도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시간이 흘러 진보한 한국의 위상은 이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 따라서 서정에서 모더니즘으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김경린의 문학적 연장선 또한 역사적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임에 틀림없다.

김경린은 문화의 세계적 흐름을 흡수하여 한국의 현실에 융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세계의 예술 사조와 경향을 한국에 소개하고, 시 창작에서의 형식적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 형식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렇다면 그에게 경제처럼 ‘선진화’ 되고 ‘낙후되지’ 않는 문학의 모델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그가 언급하는 ‘세계적 동시성’이라는 단어에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문화적 층위’를 구분 짓고 지방 국가로서의 문학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던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인식한 ‘현대’는 기계 문명 속에서 소외된 인간처럼 문화적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 문학이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질주해야 하는 시대였던 것이다.

1950년대에 ‘후반기’ 동인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두 시인이 전환과 연장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시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즉, 김규동이 현대를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회복을 향해 그의 시적 기법을 전환하였다면, 김경린은 현대를 세계적인 동시성의 시대로 인식하고 모더니즘에서 한 발 나아간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법을 실험하였다. 이는 해방과 전쟁을 겪은 청년 시인들이 ‘후반기’ 동인으로서 1950년대의 모더니즘

문학을 이끌어나갔으나 그 내부에는 현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반기’ 동인의 중심이었던 김규동과 김경린은 ‘현대’와 ‘한국의 현대’에 대한 질문에 응답으로서 초기에는 모더니즘에 조응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전환과 연장의 방식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과 대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시’란 무엇이며 ‘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답안이었던 것이다.

V. 마무리

김규동과 김경린은 1950년대에서 2000년대를 아우르는 시세계를 지닌 시인들이다. 이들의 창작 활동은 한국 모더니즘 시의 계보를 잇는 동시에 후기 시에 이르면 확연한 시적 경향의 변모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시인에게 공통적으로 창작의 공백기가 존재하였으며, 이후의 시가 나아간 방향이 서로 상반되었다는 점은 시인과 시대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본고는 ‘후반기’ 활동의 중심적 시인이었던 김규동과 김경린의 후기 시세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들 시인의 현실 인식과 작가 의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김규동은 공백기 이후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적 경향으로 작품 경향이 크게 선회한다. 그는 『죽음 속의 영웅』에서 『느릅나무에게』에 이르는 후기 시에서 기존의 추상적이고 도시적이던 이미지를 배제하고, 구체적이며 생활에 밀접한 서정을 주로 활용한다. 이는 ‘먼 곳’의 이상보다 ‘가까운 곳’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시를 쓰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는 당대의 현실을 분쟁과 분단이 만연한 시대로 인식하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의 연대와 통일이 먼

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민중의 연대와 공감을 위해 그는 전략적으로 구체적이고도 현실에 밀접한 시어를 활용한다. 무엇보다도 시인의 역할이란 현실의 모순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조국’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공백기 이후 김규동이 리얼리즘의 경향으로 나아간데 비해, 김정린은 포스트모더니즘 시의 형식 실험을 계속한다. 그는 ‘투사시’, ‘구체시’, ‘대화시’, ‘시소설’ 등의 형식을 통해서 포스트모던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서울은 야생마처럼』과 『그 내일에도 당신은 서울의 불새』를 통해서 이미지와 내부 스토리를 통한 매크로 형식을 실험하였다면,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에서는 소설의 요소들을 시 창작에 활용함으로써 현대인의 내적 고뇌와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처럼 그가 포스트모더니즘적 시의 형식 실험에 몰두했던 것은 현실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학이 세계적 동시성에 응답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시인의 후기 시 세계에는 모두 ‘국가’와 ‘민족’에 대한 고민이 깊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란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를 써야 한다는 당위성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견 밀란 쿤데라의 지적처럼 “작은 콘텍스트의 테러리즘”³⁷⁾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시를 창작한 두 시인이 공백기 동안 마주해야 했던 것은 억압적이고도 작은 국가 내에서의 시인의 역할이었다. 자의에 의해서 건 타의에 의해서건 침묵해야 했으며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시대를 향한 응답이기도 하다.

37) 밀란 쿤데라, 박성창 역, 『작은 국가들의 지방주의』, 『커튼』, 민음사, 2008, p.58.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경린,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청담문화사, 1985.
 ———, 『서울은 야생마처럼』, 문학사상사, 1987.
 ———, 『그 내일에도 당신은 서울의 불새』, 경운출판사, 1988.
 ———, 『화요일이면 뜨거워지는 그 사람』, 문학사상사, 1994.
 ———, 『알기 쉬운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주변 이야기』, 문학사상사, 1994.
 ———, 『현대시와 언어의 실험』, 『시와 시론』 1995년 가을.
 김경린 외, 『현대의 온도』, 도시문화사, 1957.
 김경린 편,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 대표 동인시선』, 앞선 책, 1994.
 김규동, 『나비와 광장』, 산호장, 1955.
 ———, 『새로운 詩論』, 산호장, 1957.
 ———, 『해방 30년의 시와 시 정신』, 『심상』 1975.1.
 ———, 『죽음 속의 영웅』, 근역서재, 1977.
 ———, 『‘후반기’ 동인시대의 회고와 반성』, 『시와시학』 제1호, 1991.3.
 ———, 『죽음 속의 영웅』, 근역서재, 1977.
 ———, 『깨끗한 희망』, 창작과비평사, 1985.
 ———, 『하나의 세상』, 자유문학사, 1987.
 ———, 『느릅나무에게』, 창비, 2005.
 ———, 『김규동 시전집』, 창비, 2011.

2. 논문 및 단행본

- 강정구·김종희, 『1950년대 김규동 문학에 나타난 모더니티 고찰』, 『외국문학연구』 46, 2012.
 권경아, 『김경린 시에 나타난 현대성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17집, 2009.
 ———,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1.
 김명옥, 『김경린 시인, 그의 삶과 문학세계』, 『문예운동』 93, 2007.
 김옥동 엮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0.
 김은정, 『김규동의 시세계 연구: 초기 시와 영화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6, 2010.

- 김지연, 「1950년대 김규동 시의 시정신」, 『어문연구』 108, 2000.
- 맹문재, 「『신시론』의 작품들에 나타난 모더니즘 문학 연구」, 『우리문학연구』 35집, 2012.3.
- 맹문재 엮음, 『김규동 깊이 읽기』, 푸른사상, 2011.
- 문혜원, 「전후 주지시론 연구-김규동, 문덕수, 송옥의 시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3호, 2004.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 밀란 쿤데라, 박성창 역, 「작은 국가들의 지방주의」, 『커튼』, 민음사, 2008.
- 박몽구, 「모더니티와 비판 정신의 지평」, 『한중인문학연구』 제19집, 2006.
- 박운우, 「1950년대 김규동 시론에 나타난 현실성 인식」, 『비평문학』, 2009.
- 손미영, 「속도에 매혹된 모더니스트의 초상」, 『비평문학』 제51호, 2014.3.
- 오문석, 「전후 시론에서 현대성 담론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2005.
- 윤여탁, 「1950년대 모더니스트의 자기 모색」, 『신청어문』 제25집, 1997.
- 이경수, 「불안과 충돌의 시학」,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 이동순, 「김규동 시세계의 변모 과정과 회복의 시정신」, 『동북아문화연구』 vol26, 2011.
- 이진영, 「전후 조응으로서의 모더니즘 문학론」,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3집, 2010.12.
- 장사선, 「김규동론-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김용직 외 『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비평 연구』, 국학자료원, 1994.
- 조달곤, 「새롭다는 것의 의미-김규동의 『새로운 시론』 비판」, 『동남어문논집』 제9집, 1999.

Abstract

Study of Kim Gyu-dong and Kim Kyung-lin's Later Poems

Son, Mi-Yeong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world of later poems composed by Kim Gyu-dong and Kim Kyung-lin. As central figures of the 'Huban-gi (The Latter Half)' Coterie, Kim Kyung-lin and Kim Gyu-dong show changes in their poetic tendencies after a break from the 1960s to the mid-1970s. Especially, in the postwar Korean literary circle, Kim Gyu-dong, who is a well-known modernist with the poem, "Butterfly and Square," drastically transforms himself into a poet who has a critical mind of realism after the break. Kim Gyu-dong sings sorrow of homesickness and a hope for a unified nation to come someday in his later poems. This is based on his perception of a reality in which 'one world' that is truly completed will come, when he understands the contemporary reality as an era of division and contention and overcomes that. Such a change in his trend of writing is a result of his fierce concern about what the role of a poet is and reveals what the poet's ethics is in the segmented world.

While Kim Gyu-Dong's later poems reveal realistic aspects, Kim Kyung-lin composes post-modernist poems after the break. Kim Kyung-lin keeps testing the poetic theory with a macro method of delivering the meanings of poems while vivid images and inside stories are united and the forms of poetry such as projective verse, conversation poem, concrete poem and verse novel. Kim Kyung-lin's tendency of writing is based on his recognition of post-modern society, according to which, modern times are a society where there is human alienation with the diversif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herefore, his intention was to deliver problems of modern times to readers of the modern times more easily through the form of post-modernism. However, this also includes his desire for global simultaneity to increase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world literature.

Poems of the two poets, central figures of 'Huban-gi' show different aspects of transformation after the break because each perceived the reality of the times differently, and yet, national and ethnic perceptions were situated deep in them. In other words, for them, 'writing poetry' was to complete the nation or to enhance the national prestige. However, the transformation of their later poems is the inevitable problem site the poet who writes poetry in an alienated language in a peripheral country encounters and at the same time, the moment when the 'poems' tell people the meaning of the long silence the poet had to suffer.

Key Word : 'Huban-gi', Kim Gyu-dong, Kim Kyung-lin, Modernism, Post-modernism, Realism, Popular poetry, Projective verse, Verse novel, Loss of hometown, Recovery, City, Rush, Butterfly, Fire bird, Global simultaneity

손미영

소속 :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 (139-701) 서울시 노원구 광운길 26 광운대학교

전화번호 : (02) 940-5292 / 010-8785-0669

전자우편 : myshon@kw.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